

‘영기’가 문양 연구 열쇠

(靈氣)

강우방 원장, 광배·공포·벽화 등 문양의 상징성 새롭게 해석

불상의 광배무늬, 목조건축물의 공포, 고분벽화 등에 나타난 무늬와 문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사진은 최근 불교미술에 나타난 추상·구상적 무늬와 문양들의 표현원리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담은 논문 ‘영기문의 성립과 전개’를 발표했다.

강 원장은 논문에서 “불교미술에 나타난 무늬와 문양은 비로자나, 우주에 충만한 기(氣) 등을 상징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기(靈氣) 문양은 다시 운기문양, 불꽃문양, 팔메트 문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기문양의 핵심은 영기를 발

산하고 또 다른 문양을 탄생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영기의 썩에 있다. 영기의 썩은 영기문양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 ‘운기화생(雲氣化生)’ 또는 ‘생명의 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영기의 썩이 가지를 쳐 다양한 문양으로 결합해 무한히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영기문양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백제 금동광배의 영기문양, 백제 금동대향로의 용의 꼬리에 나타난 팔메트 문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 원장은 또 “무늬·문양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회화적 요소들은 당대의 특수한 상황의 산물이지만 무늬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형미술에 지속돼 온 통시적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무늬와 문양에 대한 해독과 재인식은 통일신라,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조형미술의 도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논문에서는 무늬의 전승과정에 대해 “인도의 광배무늬는 중국과 한국에 와



불교미술에 나타난 문양과 무늬는 ‘만유의 생명’을 상징하고 조형미술의 통시적 요소다. 평양역사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영강(永康) 7년명 금동광배(551년)’.

서 불꽃·태극문양 영기문 등 추상적인 무늬로 바뀌었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기무늬는 일본의 유메도노(夢殿)의 무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마음챙김은 생활서 ‘측정’ 돼야

박성현 교수,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이론 개념 정리

불교에서는 끊임없는 마음챙김(동참명상) 수행으로 탐진지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이러한 마음챙김은 정신치료·상담심리학 분야와 결합돼 스트레스 완화, 정서장애 치료, 통증치료 등을 위한 명상훈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집중명상에 비해 마음챙김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천옥)은 ‘불교와 심리학적 방법론의 만남’을 주제로 11월 1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현 교수(사진)는 논문 ‘마음챙김 척도 개발’을 통해 마음챙김을 심리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명상이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시도했다.

박 교수는 마음챙김의 배양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 “마음챙김 훈련의 핵심은 노출효과에 있다”며 “이는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통증감각을 관찰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통증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을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과도한 정서적 반응 없이도 통증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탈

민감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나타난 사고와 정서에 대해 회피하거나 탈출하려 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은 이들에 의해 유발되는 공포반응과 회피행동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인내하고 이러한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마음챙김과 정신건강을 매개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온 집착과 수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매개모형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집착하는 마음’이 마음챙김 훈련시 심리상태의 고저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임을 밝혔다.

또 마음챙김→집착→심리증상의 경로에서 집착의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에 비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음챙김과 심리증상 간의 수용은 통계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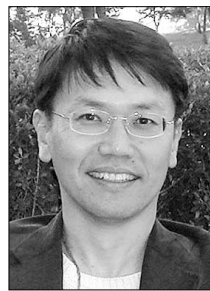
그는 마음챙김 척도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마음챙김은 자기-초점적 주의 과정인 사적자의식이나 정서에 대한 주의 그리고 내성적 주의양식과도 변별되는 주의양식으로 나타났다”며 “자기-

초점적 주의는 주의의 방향성과 관련된 개념이며 주의가 외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마음챙김 관련 척도들은 △마음챙김 명상이론에 대한 조작적 정의 미흡 △마음챙김 명상과 일상생활의 불연속성 강조 △마음챙김 명상을 인지적 성숙상태로만 간주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마음챙김의 방향은 매 순간 마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법이 보다 본질적이며 이것이 축적된 결과로서 최종적인 삼법인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므로 인지적 성숙과 같은 개념 정의는 잘못된 것이다”며 “마음챙김 척도는 위빠사나 수행이론에 근거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마음챙김을 일상생활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백일법문에 나타난 불교학...’ 성철 스님 13주기 ‘학술대회’

근대 한국 선불교의 ‘큰 햇볕’ 성철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백일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13주기를 맞이해 11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1960년대 전후 상황과 성철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법문과 법어, 저술에만 국한했던 성철 스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스님의 백일법문에 담겨있는 불교학의 성과와 스님이 인용한 과학적 근거의 의미는 물론 스님의 결사 정신이 어떻게 총림으로 구체화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를 통해 성철 스님이 불교 내·외부에 끼친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21세기에 부합하는 불교의 실천 목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종합토론의 장도 마련돼 있어 성철 스님의 사상에 대한 ‘완전해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회에서는 부산대 한민족문화연구원 조영제 연구원의 ‘백일법문과 근대 불교학’ 고려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물리학과 양형진 교수의 ‘성철스님 법문에서의 중도와 과학’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9>

묵언과 눈빛

우리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대학 강의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한 후,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다들 꿀 먹은 벼어리가 되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양권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양의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하찮은 질문일지라도 사뭇 진지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앓다뒹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아마도 예의범절을 중요시한 유교문화권의 테두리 안에 있는 동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서양의 전통 때문인지도 모른다.

를 가지는 언어구조 때문인지, 노장자도 이어지는 언어 경시 전통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송산 스님의 책을 보면 ‘힌두학자와의 대화’가 나온다. 송산 스님은 “이것이 무엇인가? 답을 해도 30일, 하지 않아도 30일을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힌두 학자는 “모든 진리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식위에서 토론되고 전해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선 수행에서는 묵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자신에 침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논리를 뛰어 넘는 선문답의 전통은

침묵 중시하는 禪 전통 정보통신시대에 ‘불리’

자비의 눈빛·말로 균형잡힌 ‘불자상’ 세워야

서양의 정신적인 자유이자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 등을 살펴보면 진리에 한 발짝 더 접근하고자 말과 논리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4대 성인인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의 나라인 인도에서도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법이 대부분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고 이것이 8만 법문을 이루었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술을 통한 부처님의 법 전법의 전통이 왜 한국과 중국에 와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서술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서양언어에 비해서 함축적인 서술구조

철저하리 만큼 말에 속지 않도록 다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영상과 음성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야 하는 정보통신시대의 포교전략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말로는 속일 수는 있어도 눈빛으로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눈빛으로 느끼는 사랑이 더 감명을 준다 한다. 같은 뇌의 신경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인데도 왜 눈빛과 말이 차이가 나는 걸까. 아마도 오랜 진화를 통해 눈과 연결된 뇌신경구조가 더욱 깊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의 전통에 의해서 수련된 자비의 눈빛과 부처님 법을 전파하는 자비의 말이 같이 어우러진 균형 된 불자의 태도가 필요한 시대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대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금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우는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전성기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끊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반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면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